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사 61:2)

## 아프간을 위한 기도

최근 몇주간 매일 뉴스에 오르고 있는 아프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폭력과 우상숭배로 수많은 생명이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땅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는것이 좋을지 고민하는 중에 국민일보의 기사를 접했다. 아프간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은 없다. 그러나 우상숭배로 고통받는 땅을 위해 기도하는 것 또한 선교의 사명을 가진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할 일이기때, 아프간을 위한 실제적인 기도제목을 가지고서 현지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국민일보에 실린 글의 일부를 발췌하여 나누고자 한다.

## 아프간은 순교자의 땅, 세계 교회 · 선교단체들 아프간 위해 기도 요청

전 세계의 박해를 감시하는 국제기독교협회(ICC)는 16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기독교인들이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ICC에 따르면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살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대략 1만~1만 2000명 사이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 기독교인은 대부분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이슬람 극단주의를 표방하는 탈레반으로서는 분명한 박해의 대상이 된다. 탈레반 이데올로기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은 사형이다.

미국의 기독 온라인뉴스 매체인 ‘크리스천헤드라인’은 아프가니스탄의 가정교회 네트워크 지도자들이 탈레반으로부터 ‘당신들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경고의 편지를 받았다’고 ‘월드’ 매거진이 보도했다고 밝혔다.

ICC는 아프가니스탄의 한 기독교인과 대화를 나눈 내용을 공개했다. ICC는 “그는 탈레반으로부터 자신의 집을 가져갈 것이라는 편지를 받은 기독교인 친구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며 “나처럼 기독교로 개종한 모든 무슬림 배경을 가진 신자들은 개종의 결과를 알고 있다. 이슬람과 꾸란은 매우 분명하며 무함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 역시 배도에 대해 매우 분명하다”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이 철수를 발표하기 전에도 기독교인들에게 위험한 곳이었다. 지난해 국제오픈도어선교회와 발표한 세계 기독교 박해 50개국 리스트에서 아프간은 2위를 기록했다. 당시 목록이 공개되었을 때 탈레반은 아프간의 특정 지역만 통제만 상태였다. 이제 탈레반은 국가 전체를 통제하고 있다.



아프간 이민자들이 16일 그리스 레스보스섬에서 반탈레반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국 남침례회 산하 구호기관인 샌드(SEND)의 브라이언트 라이트 회장은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아프가니스탄의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아프간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우리 정부가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때 그들의 힘과 용기를 위해 기도하자”고 덧붙였다.

[출처] - 국민일보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사 61:2)

## 다시 선교지로...

지난 일년여 동안 적지 않은 수의 선교사님들이 코비드로 인해 발생한 여러 이유들로 본국에 돌아와 안식년 아닌 안식의 시간을 가지셨다. 본국에 돌아온 선교사님들은 변화한 환경에 낯설기도 하고,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본국에서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해 안식년다운 쉼이나 재충전과는 조금은 거리가 먼 시간들을 보내셔야 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몇 선교사님들도 그 같은 경우가 많았다. 닉 피롤로 선교사님은 미국에 돌아와 약 일년여의 시간을 보내셨고, 여러 교회들은 방문하면서 르완다 소식과 기도제목을 나누셨다. 우리 교회도 방문하셨던 선교사님과 온 가족은 지난달 르완다에 재입국하셨다.

스리랑카의 정은범 선교사님은 올해 초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난주에 재입국하셨다. 한국에 계신동안 어머니의 마지막 병간호 기회와 장례식을 가지셨다. 한 평생을 쉽없이 스리랑카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어머니의 임종과 장례에 참석하실 수 있었던 것도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이었다.

현재 니카라과의 박우석 선교사님도 한국에서 쉼의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고, 9 월 중에 니카라과 선교센터로 복귀하실 계획이다. 감비아의 한병희 선교사님 또한 10 월 경에 안식년으로서 미국을 방문하실 예정이다. 방미하시면서 우리교회에서도 선교보고와 말씀을 전해주시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반면에 필리핀의 김대영 선교사님은 아직도 한국에서 선교지로 들어갈수 있는 길을 찾고 계시다. 팬데믹으로 더 큰 선교의 장벽을 만난 여러 선교사님들의 거취와 건강의 위험등이 여전하지만, 그 속에서도 선교의 소명과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고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기도에 우리들도 기도로 동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선교지 한줄 기도제목

### 공통기도:

-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코비드로 인해 지치지 않고, 영육이 모두 강건하시도록
- 선교사님들이 백신 접종을 속히 받으시고, 더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사역하실수 있도록

감비아	한병희	국제학교건물 증축, 샤머니즘과 토속신앙과 고투하는 교우들의 믿음.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 10 월 중 방미 예정.
니카라과	박우석	교육을 통한 복음 전파, 현지교회들과 목회자들의 영성을 위해, 9 월 재입국 예정. 대통령 대선비리와 정치불안정. 영주권 연장.
르완다	닉 & 크리스탈 피롤로	르완다 신학대학교(CLIR) 정부 승인과 적합한 교장선생님 청빙을 위해. 선교사님 가족 안식년 마치고 르완다에 재입국함.
스리랑카	정은범	8 월 말에 스리랑카에 재입국함. 9 월 비자 연장.
아리조나	모니카 리	산불과 가뭄 이후의 복구 작업.
필리핀	김대영	캄보디아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필리핀 교회의 영적 굳건함
T 국	장광장 & 주열매	코비드로 실직한 난민과 유학생들의 생활고 해결. 선교사님들의 신변안전
CRU	한정혜 & 데미안 브룩스	온라인으로 계속되는 리더쉽 프로젝트 사역들. 선교사님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